로크와 루소에서의 개인(個人) 개념

구연상(숙명여대)

* **사람=(몸+얼)×(넋+찰)** > 사람은 몸과 넋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루어짐은 '일+우+어지다'로서 일어나게 됨을 뜻한다. 생겨남은 일어남의 으뜸꼴이다.

> 사람의 **몸**은 일 그릇들의 모임이다. 그릇은 무엇인가를 담기 위한 도구이다. 그릇으로서의 몸은 그 안에 담기는 모든 것의 밑바탕인 셈이다. 머리는 몸의 으뜸이 되는 그릇으로서 우두머리 노릇과 우듬지의 뜻을 갖는다. 그릇들은 저마다의 뜻과 노릇을 갖는다. 그릇들은 저마다의 일만 잘 하면 그만일 뿐 다른 그릇들의 할 일에는 전혀 상관하지 않는다. 그러나 그릇들이 비록 따로 놀기는 할지라도 그것들은 따로 떨어져 있을 수는 없고, 오직 저마다의 일이 서로의 일에 도움이 되는 방식으로 더불어 일어나야만 한다.

> **얼**은 몸의 모임이 올바로 일어나게끔 해 주는 짜임 틀과 같다. 몸의 그릇들도 그 자체로 얼이 갖춰져 있어야 하지만, 몸을 하나이게 해주는 모임에도 얼이 깃들여 있어야 한다. 얼은 구체적 사물이 아니라 몸의 그릇들을 저마다 따로따로 이게 해 주면서 동시에 그것들이 함께 더불어 조화를 이룰 수 있게 해 주는 '다스르는 것'이다. 얼이 빠진 몸 또는 모임은 제 할 일을 다할 수 없거나 통제 불능 상태에 빠지고 만다. 얼은 모임의 짜개들을 하나로 묶어 주는 '단단한 바탕'과 같다. DNA는 몸 얼의 한 꼴일 수 있다. 모임에서 그것의 골자인 얼이 빠지면, 그 모임 자체가 흐물흐물 흐트러지고 만다.

> 사람의 **넋**은 그릇(몸) 속에 깃들이는 것으로서 그곳에 머물러 있거나 빠져 나갈 수도 있다. 넋은 몸의 안팎을 드나들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넋은 스스로의 '나 됨'을 깨닫는다(자기의식). 넋의 드나듦의 너비가 곧 사람이 삶을 살아가는 너르기가 된다. 넋은 시간과 공간, 즉 때와 곳에 대한 이해를 가능케 해 준다. 넋은 본디 언제나 어디에나 사무치는 것이지만, 그것이 몸에 깃들이는 한, 그것은 몸을 통해 마음에 주어지는 것과만 사무칠 수 있다. 만일 넋이 몸에서 벗어날 수 있다면, 그것은 허령(虛靈)이 되어 우주(宇宙)를 사통팔달 넘나들 수 있다. 넋은 사람이 죽었을 때 몸에서 빠져 나가 저 홀로 떠돌게 되는 것이다. 넋이 없거나 빠져나가 다시 돌아오지 않게 되면, 사람의 몸은 죽게 된다. 넋은 '살아 있음'의 윗

바탕이다. 넋이 빠지면, 그 빠져 나간 만큼 넋이 줄거나 사라지고 만다. 넋이 완전히 나간 사람은 미친 사람처럼 되거나 바보가 되어 버리거나 한다. 넋은 몸뿐만 아니라 마음, 더 나아가 마음속에 주어지는 모든 것까지를 다스리는 것이다. 몸이 땅이라면 넋은 하늘이다.

> **마음['×'의 영역]**은 이 둘(하늘땅)의 가운데에서 살아가는 사람과 같다. 마음은 땅으로 뿌리를 내리고, 하늘로 두 팔을 뻗고 있다.

> "**찰**"은 근원(根源)의 뜻으로 넋이 안팎으로 드나들면서 벌이는 모든 일, 즉 넋의 차림을 싸잡는 말이다. 넋은 '다스리는 것'으로서 몸이 온전할 수 있도록 지킬 뿐 아니라, 마음속에 주어지는 모든 것을 살피며(느낌, 되돌아보기, 눈여겨보기, 미루어보기), 그렇게 주어진 것들 가운데 눈에 띄는 것들을 '어떤 것'으로 여기고(받아들이기, 풀어내기), 그러한 여김의 사슬을 통해 앎을 얻으며(물음에 대한 올바른 대답), 앎의 바탕 위에서 옳고 그름 등에 대한 생각을 벌여 나간다(대답·뜻·길-찾아나가기). 뿐만 아니라 넋은 마음 자체로부터 비롯되는 바람이나 싶음(하고 싶음, 되고 싶음, 답고 싶음) 그리고 함을 다스려 나간다. 넋의 빼어난 모습은 사람이 참됨을 깨닫도록 한다는 데 있다.

*** 못나누미에 대한 설명**

> 서양에서 사람은 육체와 정신의 결합체로서 이해되어 왔다. 육체는 물체에 속한 것으로서 '공간적 크기'를 갖는 것이다. 여기에는 아무런 목적도 주어져 있지 않다. 만일 사람에게 정신이 없다면, 사람은 '아무런 목적도 없이 움직이는 자동 기계'와 같을 것이다. 그런데 이 기계는 감각의 오류를 범한다. 이는 기계 제작자의 어떤 무능력을 뜻한다. 만일 신이 전지전능하다면, 인간의 신체에서는 아무런 결함도 있을 수 없다. 거꾸로 말해 인체에 어떤 결함이 있다면, 그것은 인체가 '속이는 자'로서의 악마의 피조물일 수 있음을 뜻한다. 만일 그렇다면, 사람은 결국 악마의 종으로서 악행만을 일삼게 될 것이다.

> 사람이 '단순 기계'가 아니려면, 사람에게는 스스로 자신의 삶의 목적을 정할 줄 아는 '정신'이 깃들여 있어야 할 뿐 아니라, 아울러 사람이 '악마의 허수아비'도 아니라면, 사람에게는 그가 선한 신의 창조물임을 증명해 줄 증거, 즉 결코 거짓일 수 없는 어떤 진리가 발견될 수 있어야 한다.

> 만일 악마가 '속이는 자'이고, 그가 사람을 속일 수 있다면, 정신만이 속임을 당할 수 있는 한, 사람은 분명 정신이 있어야 한다. 정신을 갖춘 사람은 그가 비록 악막에게 속을지

언정 그렇게 속임을 당하는 자기 자신의 정신만큼은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분명히 자각한다. 이때의 자각은 결코 의심할 수 없는 절대적 진리가 된다. 이러한 진리의 발견을 통해 사람은 '선한 신'의 창조물이 된다.

> 만일 사람의 몸이 '자동 기계'라면, 그 기계는 일종의 도구로서 그것의 사용자가 있어야 한다. 정신은 그 기계를 부리는 '주인'으로서 몸의 사용자이다. 정신은 몸에게 그 움직임의 목적을 명령하는 자이다. 사람은 부림의 주인인 정신을 갖추고 있다는 점에서 단순한 기계가 아니다.

> 사람은 정신과 육체의 결합체이다. 그런데 육체는 물체의 일종으로서 공간적 크기를 가질 뿐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끊임없이 나눠질 수 있는 것인데 반해, 정신은 '공간적 크기'를 가질 수 없는 것으로서 결코 나눠질 수 없는 것이다. 사람의 결합체 가운데 '나누어질 수 없는 것' 또는 '못-나누미', 달리 말해, 사람의 본질을 이루는 것은 바로 정신이다. 이러한 정신을 그들은 "나(ego)"라고 불렀다.

> 나는 내 몸의 주인이자 사용자이고, 속음의 당사자가 되며, 언제나 하나뿐인 것이고, 따라서 나를 잴 수 있는 단위는 있을 수 없고, 너와 나는 완전히 다른 개체이다. 이러한 나의 본질은 곧 정신의 본질인 생각하기에 놓인다. 나는 '생각하는 것'이다. 이러한 생각은 나 스스로가 그것에 대해 생각할 때마다 저절로 확실하다. 이러한 '자기 확실성'이 곧 진리이다.

> 못나누미는 사람의 두 짜개 가운데 '나눌 수 없는, 아니 나누고 싶지 않은 부분'인 정신을 일컫는다. 못나누미는 우주 전체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로부터도 분리될 수 있고, 신으로부터도 그리고 악마로부터도 그 나름의 독립성(자기확실성)을 확보할 수 있다. 못나누미는 정신적 실체로서 그 자신의 있음을 다른 것에 의존해 있지 않아도 되고, 더 나아가 물질 세계의 필연적 인과 법칙에서 독립되어 있고, 신의 전지전능한 지배력으로부터도 자율성을 갖게 된다. 못나누미는 그 못 나눔의 성격으로 말미암아 독립되고 자유로운 실체로서 '스스로의 삶을 스스로 결정하고 스스로 책임져 나갈 줄 아는 자율적 실체'가 된다.

1. 소유하는 개인[1]

[1] 이 절의 내용에 대해서는 정윤석, 『로크 『통치론』』(『철학사상』, 별책 제2권 제4호, 서울대학교철학사상연구소, 2003)을 살핌.

존 로크(John Locke, 1632-1704)의 대표작 가운데 하나인 **『통치론(統治論, Two Treatises of Government)』**은 직역하자면 "통치에 관한 두 논문"이다. 제1론 "The First Treatise of Government"은「로버트 필머경 및 그 추종자들의 그릇된 원칙과 근거에 대한 지적과 반박」("The False Principles and Foundation of Sir Robert Filmer and His Followers are Detected and Overthrown")이라는 부제를, 제2론("The Second Treatise of Government")은 「시민정부의 참된 기원, 범위 및 목적에 관한 시론」("An Essay Concerning the True Original, Extend, and End of Civil-Government")라는 부제를 달고 있다.

로크는 이 책의 부제에 거명된 **필머 경**의 **『족장론(Patriarcha)』**(1680)을 반박하기 위해 이 책을 썼다. 필머는 영국 내전 시기의 왕당파 저술가이자 켄트주의 시골 귀족으로서 왕권 신수설(the theory of the divine right of kings)을 주장했다. 이에 따르면 **통치자의 권리**는 하느님께서 특정 개인에게 선물로 직접 준 것이고, 그 통치의 범위는 땅과 재산을 비롯한 각종 소유물에서부터 인간 자신에 대해서까지 미치며, 일체의 소유권의 유일한 주체는 군주로서의 왕이 된다. 즉 왕을 제외한 그 누구도 '못나누미'로서의 개인이 될 수 없고, 따라서 모든 사람이 왕의 소유물로 해석된다.

로크는 왕과 대립하던 샤프츠베리(Shaftesbury, 1661-1713)와 휘그 파(Whig Party)의 입장을 정당화하기 위해 **사람의 생명과 자유 그리고 재산에 대한 권리가 각 개인에게 있음**을 주장하고, **정치적 권력도 개인의 합의에 의해 도출되어야 한다**는 것을 주장했다.

1. 나의 생명과 자유 그리고 재산은 '나'로부터 나눌 수 없다. 이 '나눌 수 없음'이 곧 '내'가 그것들을 가질 수 있는 권리(權利, the right)를 갖고 있음에 대한 증명이다.

2. 사람의 정신은 **'타블라 라사(tabula rasa)'**, 즉 아무것도 쓰여 있지 않은 필기판의 형태로 태어난다. 우리의 정신은 그 자체로도 '못나누미'이지만, 백지와도 같은 정신에 기록된 모든 것, 즉 **'정신의 재산(財産)'**도 '못나누미'이다.

3. **경험의 가능 조건으로서의 감각과 감각 기관, 그리고 그 기관이 속한 '나'의 신체 전체까지도 '못나누미'로 확장될 수 있다.**

4. 못나눔의 테두리(범위, 範圍), 즉 '나'에게 정당하게 속할 수 있는 권리는 '나'의 몸을 통해 손에 넣은 모든 것에게로 넓혀질 수 있다.

권리는 **무게나 길이 등을 잴 수 있는 저울을 쥔 손**을 뜻한다. 권리는 **"스스로의 몫을 올바른 저울질을 통해 얻는 것"**을 말한다. 권리는 "스스로의 몫"과 "올바른 저울"이라는 두 측면에서 이해될 수 있다.

- 로크에게서 **"올바른 몫"**은 소유를 말하고, **"올바른 저울"**은 법을 말한다.

- **소유(所有)**는 **누군가의 가진 것**을 뜻한다.

- **홉스의 자연 상태 개념**에 따를 때, 모든 사람은 가능한 한 더 많은 것을 가지려 하고, 이러한 욕심 경쟁 때문에 가짐을 둘러싼 싸움이 끊이질 않게 된다. 반면 로크는 홉스의 차선책을 부정한다. 모든 사람이 벌이고 있는 '보다 많이 갖고자 하는 싸움'을 멈추게 하려면 싸우미 서로가 저마다의 필요한 것을 가질 수 있는 **'올바른 방법'**을 미리 결정해 두면 된다.

- 로크는 **소유(所有, property)의 개념**을 **"생명, 자유, 자산(life, liberty, estate)"**의 뜻으로 넓게 쓰기도 하지만, 좁게는 **"경제적 재화(財貨)"**의 뜻으로 쓴다.

- 그러나 법 자체가 올바르지 않을 수도 있다. 이때의 가짐의 올바름이 깨질 수도 있고, 잘못된 방법으로 가진 것이 법의 보호 아래 놓일 수도 있다.

- **"샘에 흐르는 물은 모두의 것이지만, 주전자에 있는 물은 그 물을 담은 사람의 것이다."**[2] 사람이 자연의 임자가 될 수 있는 길은 **일하기(노동, 勞動)이**다.

- 로크는 **사유재산권**을 정부에 의해서도 침해될 수 없는 고유의 권리로 천명(闡明)한다. 즉 정부는 개인의 재산이나 권리를 개인의 명시적 동의 없이 마음대로 처분해서는 안 된다. **정부의 권력은 못나누미로서의 개인의 권리에 앞설 수 없**다.

> 로크가 제시한 가짐의 제한

첫째, 개인은 '제 몸'으로 일할 수 있는 한도까지만 땅을 가질 수 있다.

둘째, '나'에게 필요한 만큼만 가져야 한다.

셋째, 내가 가짐으로써 남이 피해를 입지 않아야 한다.

---

[2] 로크의 『통치론』 29절.

- 반면 이러한 조건만 지킨다면 개인은 얼마든지 자신의 부를 늘릴 수 있다. '나'는 '내가 가진 것'의 임자로서 그것을 쓸(사용) 수도 있지만 **사고팔 수**도 있다.

- 로크는 **부의 집중을 통해 모두의 삶의 질이 높아질 수 있다면** 그것은 정당하다고 본다. 노동자들이 비록 자신들 소유의 땅은 없지만 임금을 통해 생존을 이어갈 수 있는 한, 자본의 집중은 누구에게도 피해를 끼치지 않는다고 할 수 있다. 사람들이 화폐를 사용하는 순간 소유의 제한은 불가능해지고, 빈부의 격차 또한 피할 수 없게 된다.

2 자유로운 개인

자유(自由), 그것은 못나누미의 가장 간절한 소망이었습니다. **장 자크 루소**(Jean Jaques Rousseau, 1712~1778)의 『사회계약론』(1762) 제1부 제1장은 다음과 같이 시작된다. **"사람은 세상에 자유인으로 태어났음에도 곳곳에서 구속받고 핍박받아 신음한다.** 남의 주인으로 자처하는 자 역시 그들 못지않은 심한 노예 상태에 떨어져 있다....이러한 사실이 정당화될 수 있었던 까닭은 무엇일까?"[3]

- 루소는 어머니 없이 자랐다. 시계제조업자였던 아버지는 루소를 버리고 외국으로 도피하며, 루소의 친 형은 가출하게 되고, 루소는 결국 외삼촌 손에서 자라게 되지만, 12 살부터는 소송서류를 베끼는 견습공과 동판을 조각하는 견습공 생활로 독립하게 된다.

- 루소는 『학문 및 예술론(Discours sur les sciences et les arts)』(1950)으로 널리 유명해지고, 『인간 불평등 기원론(Discours sur l'origine et les Fondements de l'inégalité parmi les hommes)』(1955)으로 큰 명성을 얻었지만, 『사회 계약론(Le Contrat social)』(1762)과 같은 해에 출판한 『에밀(Emile)』이 금서로 지정되고, 저자에 대한 체포령이 내려지는 바람에 도망자 신세가 된다.

- **『인간 불평등 기원론』**(1755)에서 루소는 **사람의 자유를 억압하는 근본적 불평등**을 둘로 나누었다. 하나는 자연적으로 주어진 **신체적 불평등**이고, 다른 하나는 **잘못된 계약에 의한 사회적 불평등**이다.

- 루소는 불평등의 유래를 밝히기 위해 **평등한 세상**을 먼저 보여준다. **자연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은 자유롭게 살아간다.**

---

[3] 장 자크 루소, 방곤 옮김, 『사회계약론(Le contrat social)』(1762), 신원문화사, 1991. 8쪽.

- 만일 인류의 출발 단계인 자연 상태가 불평등이란 거의 찾아볼 수 없는 평등 상태였다면, 현재의 수많은 **불평등의 근원**은 자연 상태에 뒤이어 등장한 문명 상태에서 찾을 수밖에 없다.

- **사회적 불평등의 핵심은 특권 계급에 의한 '이권과 권력의 독차지(獨-)'**를 꼽을 수 있다.

> 누군가 **굴종적이고 노예적인 불평등 상태**에 처하게 되었다면 그것은 폭력에 의한 것일 수밖에 없다. 이러한 폭력이 제도화 되고 구조화 됨으로써 불평등한 사람들은 폭력에 비굴하게 굴복하게 되고 영구적인 노예가 된다.

> 루소는 **불평등의 주요한 기원**으로서 학문과 예술을 꼽았다.

> 현대에 **피에르 브르디외**(Pierr Bourdieu, 1930~2002)는 **교육을 통한 구별짓기**(distinction)의 문제를 제기했다.

> **라이프니츠**는 예술 작품을 친근하게 느끼는 방식을 **"여린 지각(little perception)"**이라 불렀다.

> 브르디외의 **"아비투스(habitus)": "몸에 밴 것"**

- 교육 기회의 평등은 지식이나 부의 누적적 증가를 막아 준다. 학교교육은 가난한 아이들에게 자신의 신분에 맞게 '몸에 밴 것(아비투스)'을 뛰어넘을 기회를 제공하고, 그로써 어느 정도 사회적 평등과 형평을 이루는 데 기여한다.

> 2천 5백 년 전 **아리스토텔레스**는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결코 평등하지 않다. 어떤 사람은 노예로 태어나고, 어떤 사람은 지배자로 태어난다."**고 말했다.

> **조선시대** 학문은 사대부만의 몫이었다. 그들은 한문몰입교육을 통해 학문의 주도권을 쥐고 있었고, 그로써 정치까지 완전히 장악할 수 있었다.

> **현재의 한국**에서 시도되고 있는 영어몰입교육은 국민차별의 숨겨진 이데올로기이다.[4] **차별이 제도화 되는 사회**는 당연히 썩을 수밖에 없다.

- 루소는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 사람은 세상에 자유인으로 태어났다고 외쳤다. 자유로운 사람은 자신이 살아갈 사회와 그 사회의 법률도 자유롭게 선택할 권리를 갖는다. 루소가 인정한 사람의 삶의 기본법칙은 오직 하나 **"자기 보존"**이다. 이것은 남의 것을 빼앗는 전쟁을 통해 자기 것을 확장해 나가려는 이기욕(利己慾)이 아니라 '못나누미'로서의 자기를 독립

[4] 이에 대해서는 구연상, 「글쓰기와 사무침」(『우리말로 학문하기의 고마움』, 채륜, 2009) 살핌.

적으로 유지해 나가는 자기애(自己愛)를 말한다.

> **개인주의의 기본이 되는 것은 바로 자기애이다**. 자연(自然)의 사람은 평등하고 자유롭게 태어났기 때문에 자신의 이득이 되는 경우 외에는 자신의 자유와 평등을 결코 남에게 넘겨주지 않는다.

> 자유로운 사람이 자신의 자유를 제한하는 유일한 경우는 그것이 그 자신에게 이득이 될 때뿐이고, 자기 자신을 다른 사람에게 넘겨주는 때는 오직 그로써 자신의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경우뿐이므로, 만일 그가 사회를 구성한다면, 그의 사회 구성의 유일한 목적은 바로 자기 보존을 위한 것밖에 없다.

> 이러한 자기 보존의 목적을 실질적으로 이룰 수 있는 방법은 오직 **계약의 원리**뿐이다.

> 계약은 오직 자유인 사이에서만 가능하다. 루소의 사회 계약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서로를 자유인으로, 즉 서로를 주권자로 대우하는 것이다. 저마다의 자유와 주권은 남에게 넘겨줄 수도 없고, 또 나뉠 수도 없는 것이다.

- **루소의 최대 관심사: 어떻게 자유로운 사회를 구성할 수 있는가?**

> 기존의 불평등 사회는 온갖 차별과 구속을 통해 사람의 본성을 파괴해 왔다.

> 그것은 강자가 아닌 **"보편적 법"**에 의해 다스려지는 정부를 만드는 일

- 자연 속의 사람은 그 어떠한 사회적 억압도 받지 않은 채 살아가는 개인, 즉 자유로운 개인이다. 내가 못나누미(개인)로서 살아갈 수 있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자유가 요구된다. 자유는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것, 즉 못나누미이다.